

복음과 의료

—신학적 측면에서—



백벨라치도 신부
가톨릭 신학원 원장
대구파티마병원원목

고대시대의 모든 민족들은 질병을 종교적 현상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그 당시는 사제와 의사는 같은 사람이었다. 특히 질병을 신의 형벌로 간주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예들을 구약성서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야훼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떠나 가셨다. 구름이 장막에서 걷히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아론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돌아보고 모세에게 빌었다. "우리의 영도자여, 우리가 어리석어서 저지른 이 잘못을 벌하지 마시오. 미리암을 저렇게 살이 몽그러진 채 죽어 태어난 아이처럼 뒤죽지는 마시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

내용을 보면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보았다.

다른 예는 사무엘상 16장 14절 - 16절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야훼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몰아 넣자 그의 신하들이 말하였다. "삼가 아뢰니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

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부디 소인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타는 사람을 구해 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악령을 내리실 때마다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시면 마음이 개운해질 것입니다." -

위의 인용은 사울의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벌로 보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그 정신병을 고치는 요법으로 음악 즉 다윗왕의 수금이 등장한다. 현대 여러병원에서 음악을 하나의 정신로법으로 재발견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시편 38장 3절 - 9절과 이사야 1장 4절 - 6절까지 예를 들 수 있다.

- 죄을 지은 이 몸은
살속까지 당신 진노앞에 성한 데가 없사옵니다.
- 정녕 내 잘못은 내 머리 훨씬 위에 있어 무거운 짐처럼 모질게 억누릅니다.
- 굶아 터진 상처에서 냄새가 납니다. 모두 나의 어리석었던 탓입니다.
- 더 떨어질 수 없이 몰락한 이 몸, 날이면 날마다 슬픔에 잠겨 지냅니다.
- 몸 위에 성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고 속에서는 불이 납니다.
- 맞고 짓밟혀서 실성한 이 몸,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부짖습니다.

- 나의 주여, 이 가슴을 다 열어 보입니다.
이 몸의 소원을 숨김없이 아릅니다.

(시편 38: 3~9)

- 아! 탈선한 민족, 불의로 가득찬 백성
사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들
야훼를 떠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여 돌아 섰구나.
- 아직도 덜 맞아서 엎나기만 하는가?
머리는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병이 들
었으며
-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하고 멍들고 맞아 터졌는데도
짜내고 싸매고 약을 발라 주는 이도 없
구나 (이사야1: 4~6)

집회시 38장 1절 - 15절은 특별히 재미있
는 귀절들이다.

-의사를 존경하여라, 너를 돌봐 주는 사람이
요

또한 주님께서 내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병을 고치는 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오며 의사는 왕으로부터 예물을 받는다.
의사는 그의 의술로 높은 지위를 얻으며
고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주님께서 약초를 땅에 나게 하셨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것을 가버어 여기
지 않는다.

주님께서도 옛적에 그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나무를 던져 물을 맑게 하시
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또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어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게 하셨다.
의사는 약을 써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 고통
을 덜어 주고

약제사는 약초를 섞어 약을 조제한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그치지 않을 것이
며, 그분의 평화는 온 세상에 내릴 것이다.

들어라, 너는 병중에서 주님을 떠나지 말
아라.

항상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 가라, 그는 주님께서
내신 사람이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멀리하지 말
아라?

대개 건강은 의사들의 손에 좌우된다.

그들은 그들대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
환자의 고통을 덜고 병을 고치는 은총을 빈
다.

그렇게하여 환자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다.-

위의 인용은 전체적으로 의사와 약사에 관
한 것인데, 여기에서 벌써 의사와 약사의 역
할을 어느 정도 구별하고 있다.

또한 병을 고치는데 있어서도 자연적인면
과 초자연적인면 즉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
이 하시는 역할을 구별한다.

집회서는 지혜문학과와 서적으로 지혜문학
파는 하나의 계몽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그들은 벌써 어느 정도까지 구별하는것
을 습득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에서 욕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욕
은 의롭고, 부유한 사람이었으나 여러가지 재
난으로 가산을 잃고 병마져 얻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
런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
었다.

욕의 친구들은 전통적인 답변을 하는데 욕
은 그것을 다 부인하고 결국 자신에게 덮친
재난과 병고는 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므
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하느님의 섭
리와 안배로서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

신약성서로 넘어가서 보면 루카복음 13 장
16 절에서

-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심 팔

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 하셨다.-

예수께서는 병은 사탄의 영향으로 생긴다는 표현식을 그대로 사용하신다. 예수께서 참말로 그렇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셨는지는 알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14 절 - "자, 지금은 배병이 말끔히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일러 주셨다.- 벡사이다 못가의 병자이야기에서 예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병과 죄와의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 11장 30 절에서

-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자와 병든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이 때문입니다." -

바로 사도가 만찬식 때의 여러가지 폐단 때문에 그 교회에 병이 많다고 단죄하신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2 절 이하에서

-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

예수께서 분명히 병자나 그 부모의 죄와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신다.

따라서 여기서는 욕기에서 나오는 비슷한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예수의 여러가지 치유기적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한다.

전통적으로 설명되어온 예수의 치유기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또 다른 설명은 선전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른데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치유기적을 행하셨다면 그 당시 모든 환자들은 물론, 오늘도 모든 환자들은 다 치유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몇사람만 기적적으로 치유하셨다.

선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는 몇번이나 치유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격히 당부하셨다. 만일 선전이 목적이라면 그런 말씀은 아주 모순이 된다.

따라서 오늘날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예수께서는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그것은 특히 루가복음 7장 18 절 - 23 절까지 말씀에서 분명히 나온다.

-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제자 두사람을 불러서 주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은 예수께 가서 "세례자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십니다." 고 말하였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또 많은 소경들의 눈도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

가 듣고 본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

그러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치유 기적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뜻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부연하면 예수께서는 종말론적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병자를 낫게하신 것이다.

물론 메시아는 병을 완전히 다 없애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보아 하느님은 인간의 평안을 원하신다. 그러나 현세에서 우리는 병과 죽음을 견디어냄으로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빠스카의 신비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질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도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몇번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병고와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몸소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몇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교회는 초기부터 병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제사명으로 보았다.

그것은 특히 마태오 복음 25장 36절에 - "혈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 같은 복음 10장 8절 -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어라. 나병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교훈으로 삼아서 병자들에게 봉사했던 것이다.

그리고 야고버서 5장 14절 - 16절에서 하나의 분명한 예를 볼 수 있다.

-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온전해질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의 간구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

여기서 치유에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와 신학적인 요소를 묶어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병자의 성사때 많은 사람들이 병자의 주위에 모여 신앙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봉사이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는 초기부터 요양원, 병원 같은 것을 설립하여 병자를 돌보는 일을 특히 동정녀와 과부들에게 맡겼다.

현대에 와서 우리의 의료사업을 예수와 같은 정신으로 해야한다. 우리들의 의료사업은 종교적인 정신, 바꾸어 말하면 그 종말론적인 희망을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료사업을 위해서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옛날부터 여러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중에 하나는 돈벌이, 그리고 병자들을 착취할 위험성이 그것이다.

교회병원이라면 그런 위험성을 없애 버리기 위해서 과감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래야 의료사업이 종교적 현상의 하나로서 종말론적인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